

최선의 防災는 予防

防災示範빌딩建立에 期待크다

朴 魯 敬

〈朝鮮日報 論說委員〉

〈激增趨勢에 있는 火災被害〉

火災피해의 증가는 GNP의 증가와 比例한다고 專門家들은 말하고 있다.

GNP의 증가가 곧 「불탈 것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이러한 論斷의 정당성은 火災에 관한 統計에서도 實證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경제개발정책이 本格化하기 전인 1963년의 우리나라 火災발생 건수는 1,904건이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억 7천여 만원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火災 1건당 平均피해액은 약 14 만원).

그런데 經濟開發계획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선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7년간의 火災통계를 보면 그 發生건수는 年平均 3,187건으로 前記 63년의 그것에 比하면 60%가 증가했고, 그 재산 피해액에 있어서는 年平均 8억 3천 4백 19 만원으로 63년의 그것에 비해 무려 5,958 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사업이 한층 더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온 1970년부터 1975년

까지의 6년간 통계를 보면 火災件數에 있어서는 年平均 4,242건으로 63년의 그것에 比하여 2.2 배로 늘고, 財産被害에 있어서는 年平均 50억 5천 6백 34 만원으로 勿驚 3만 6천 1백 16배 激增하고 있다.

人命피해(死亡 및 負傷)도 이렇게 높은 율은 아니지만 確實히 늘어나고 있다(死亡은 年平均 62%씩 증가하고, 負傷은 79%씩 증가).

近年들어 이렇게 上昇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火災피해 增加率이 얼마나 顯著한 것인가는 先進諸國의 이 관계 통계와 比較해 보면 더욱 뚜렷해 진다.

火保協會에 의해 작성된 통계(1964~1974년 사이의 年平均 國民 1人當 火災被害額 증가율)에 의하면 美國, 日本, 英國, 서독, 和蘭, 스웨덴, 호주, 캐나다는 각각 6.9%, 11.8%, 3.7%, 9.7%, 12.4%, 13.2%, 8.7%, 4.2%인데 比하여 우리나라의 그것은 무려 41.4%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火災피해 증가율은 最低率의 나라인 英國에 比하면 11.2배요, 最高率인 瑞典에 比해 봐도 3배이상이나 높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 1천명당 平均 火災발생 건수는 先進諸國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日本의 그것이 각각 14.1, 5.6, 3.37, 1.55, 0.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116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前記한 것 처럼 火災被害증가율의 急上昇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국민 1천명당 火災발생건수가 적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火災문제의 심각성은 「件數」에 보다 「피해액」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火災件數에 있어서는 각각 1.5%, 1.8% 밖에 안되었던 大形火災가 年間 總 火災被害額中 각각 94.1%와 81.8%를 차지한바 있는 지난 74~75년도의 우리나라 火災被害狀況은 火災의 문제성이 「件數」에 보다 「피해액」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地獄의 火塔을 어떻게 避하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火災피해증가율은 急激한 上昇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警火意識은 官·民을 막론하고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건축構造上 火災위험을 안고 있는 특수 防火대상건물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 安全點檢에서 지적된 防火시설상 또는 防火장비상 虛點들을 몇가지씩 溫存하고 있는데 상건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의 消防태세도 그 落後性에 있어서 국민 일반의 낮은 警火意識水準과 大同小異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消防官署와 人力이 殆不足한 현실이나 소방장비의 老朽化·소방예산의 寡少등에서 그것은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火災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전 반적으로 낮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다아는 바와같이 오늘의 火災는 그 대상의 大形化(각종 工場의 大單位化, 각종건물의 高層化·住宅의 集團化=아파트)에 따라 火災도 大形化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듯 大形化된 대상에서 火災가 발생하면 發火→發見→申告→出動體制가 아무리 잘되는 경우라도 밖으로부터의 鎖火는 거의 絕望的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外書 「타워링」에서 볼 수 있는 138層 건물의 「地獄의 火塔化」는 극단의 例라고 하더라도 5~6층만 넘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벌써 高架사다리 消防車도 對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건물안의 플라스틱製 家具나 장식품과 합성섬유제품인 커튼이나 衣類등에 불이 붙어 거기서 나오는 有毒가스가 넓은 건물안에 확산되더라도 한다면 고층건물이 아니더라도 밖으로부터의 소방활동은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밤중의 市場火災처럼 서터가 굳게 닫혀진 상태에서 불이 나면 더욱 밖으로부터의 鎖火는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고 있는 結論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防火대책은 부득이 「事前豫防」에다 중점을 두는 方向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火災豫防에 힘쓰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소방체제가 「鎖火에서 예방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의 필연적인 흐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防火대책의 重點을 鎖火에서 豫防으로 옮기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깊이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防災장치에 대한 각종 知識과 情報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火災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防火思想의 水準을 끌어올리기 위한 敎育·弘報事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하겠다는 말이다.

〈防災示範빌딩의 意義〉

이렇게 볼 때 지난 10월 11일 한국火災保險協

會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완벽한 「防災示範빌딩」이 서울 여의도에 建立・竣工됐다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地下 1층 地上 15층, 延建坪 5천 6백여坪의 이 건물은 設計단계에서 부터 防火專門家들을 動員하여 火災예방에 최선을 다해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全層에 防火구획을 철저화했고, 全建物を 不燒化했으며, 全層의 스프링클러化, 全層의 自動火災탐지 設備과 자동 火災通報장치의 完壁化, 특별避難계단의 마련・비상脫出緩降機시설, 비상용電源시설, 응급용放送시설, 全防災시설에 대한 統制관리장치, 屋上헬리콥터 착륙장치, 常設防災전시장...등 화재예방과 火災時的 自體鎮火장비를 완비함과 아울러, 防災示範빌딩으로서의 示範과 火災예방・自體진화에 관한 교육 훈련용 건물로서 萬全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政策的인 火災위험 「제로」 示範빌딩을 짓는데는 40억원이란 巨額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일반 빌딩의 건축비에 비하여 약 50%정도의 追加부담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적은대로 우리나라의 警火意識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大形火災엔 오직 事前豫防策의 完備이외에 별로 妙策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防災示範빌딩」의 意義는 그 많은 建立費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비에 추가된 비용이 50%가 아니라 1백%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빌딩이 우리나라의 모든 특수건물과 高層・大形건축물의 火災예방 교육을 위한 必須 不可缺의 教材로 되고, 그것을 위한 道場 修鍊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

게 될 때에 그 추가된 건축비보다 몇 10배 몇백배의 有用性을 발휘할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같은 나라에서는 火災에 대한 완전예방기능을 갖추고 있는 빌딩과 그렇지 않은 빌딩 사이에는 賃室料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빌딩의 賃室廣告에서 「火災위험 제로 建物」임을 크게 강조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 빌딩업자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가 必至라고 본다면 前記 「防災示範빌딩」에 대한 기대는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火保당국에게 바랄것이 있다. 어려운 與件에서 애써 마련한 이 「防災示範빌딩」을 防火에 관한 弘報教育에 최대한 活用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다.

防災有關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우선 모든 특수防火건물의 所有者와 管理者, 아파트등을포함한 高層건물의 건설업자, 빌딩建築희망자, 각급 학교의 관리자와 敎職者등을 계획적으로 관람토록 함으로써 이들의 警火意識을 높여 줬으면 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동원, 관람케하는 계획도 文教部당국과 협의, 계획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外畫 「타워링」의 라스트·신에 나오는 警句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인간의 無知와 오만」 때문에 불이라는 利로운 것을 소홀 輕視 함으로써 스스로 自滅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直面하여 (韓國火災保險協會)는 자신에게 걸쳐지고 있는 기대가 至大하다는 것을 거듭 自覺・火災예방에 끊임없이 警鍾을 울려 줄것을 懇望해 마지 않는다.